



12면

무주구천동 어사길
비대면 안심관광지 선정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음 4월 29일) 제279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가 8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전북 관광지 및 전통문화를 랜선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아름다운 전북 랜선으로 홍보

오늘까지 이틀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수업 통해
도내 관광지 화면으로 생중계·전통문화 체험도

전북도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전북 관광지와 전통문화를 랜선으로 홍보한다. 도는 55개국 2,50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의 정규수업인 'Modern meets Heritage'에서 이틀에 걸쳐 도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화면으로 생중계한다고 8일 밝혔다. 첫 수업의 시작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인사로 시작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으로 한복·한지·한식 등의 본고장이다"라면서 "이들의 수업 동안 한국의 전통놀이와 춤을 배워 하루빨리 다 같이 만나서 손에 손잡고 강강수월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복을 입은 진행자가 전주한옥마을의 역사와 함께, 경기전과 전통성당 등 구석구석을 소개한 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학생과 함께 부채 만들기와 비빔밥 체험을 생방송 영상으로 실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애

기했다. 다음날인 9일에는 비대면 안심여행지로 순창군 관광지 소개와 장류, 전통놀이 체험 등이 영상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아침 일찍 체계산 1,004개 계단을 올라 조록나무들 사이로 빨갛게 늘어선 출렁다리를 건너 후, 고추장 피자와 인절미 만들기, 쌀튀밥 튀기기 등을 통해 전통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마지막 하이лай트는 순창향교에서 전통놀이 체험이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면으로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며 코로나19 조기 극복도 다 같이 외쳐볼 예정이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전북 여행 생중계는 지난 3월 글로벌 스마트관광네트 워크숍에 참여했던 말레이시아 B2B 상담회 일련의 성과"라면서 "향후에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외래관광객 유치에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건강·평생학습·일자리... 여의동에 장애인 지원공간 들어선다

전주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중간보고회

전주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평생학습을 지원해주며, 일자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체육복지센터가 여의동에 들어설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전주시는 8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에서 전주시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이 공모한 '2021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2023년까지 국비 51억원 등 총 112억7,000만원이 투입돼 지상4층, 연면적 4,000㎡(1.210평) 규모의 장애인들의 거점 체육복지센터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재활체육실, 재활상담실, 일자리 상담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용역을 맡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비롯해 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 생활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임(발명자모), 느루결 등 장애인단체와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체육회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이날 건립 장소와 건립방향 등 건립기본안 운



전주시는 8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에서 전주시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평생교육센터·재활체육실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 다채
건물 진입 시 불편함 없앨 수 있도록 경사로 완만하게 설계
다양한 종목의 실내체육 가능하면서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

영방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했다. 체육복지센터 건립 장소의 경우 부지 접근 가능성과 경제적 요인, 교통·지리적 요인 등을 고려해 여의동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제시했다. 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전주시 장애인들의 맞춤형 수요 충족을 비전으로 삼아, 기능성과 연계성, 편의성, 효율성, 장애성 등의 건립기준을 반영해 설계하자고 했다.

특히 건물 진입 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를 설계하고, 수영 등 다양한 종목

의 실내체육이 가능하면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위탁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모두에

게 큰 힘이 될 장애인 체육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재활체육, 사회적응·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 운영기관과의 네트워킹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편의와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 일자리, 소통공간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장애인 체육복지센터 건립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면서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고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에 걸맞은 자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지원

도, 내달 초까지 접수... 창업 최대 3억·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

전북도가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을 각 시·군을 통해 오는 7월 초까지 신청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은 농협자금을 활용,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

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진행해 결정한다.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업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귀농·영농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전직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정착하고 싶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유호상 기자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IMSIL-GUN
임실군